

# 반세기 시민 치료하던 병원, 마음치료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1965년 개원한 광주 대인동 옛 김내과 건물  
복합문화공간 '김넷과' 리모델링 오늘 오픈  
전시·공연장, 도서관, 예술 호텔, 카페 구성  
대안공간 '미테-우그로' 입주...세미나 등 진행  
대인예술시장·문화전당 잇는 가교 역할 기대



광주시 동구 대인동 옛 김내과 건물을 리모델링해 19일 문 여는 복합문화예술공간 '김넷과'.

한때 광주를 상징하는 변화가었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공동화 현상을 겪는 대인동은 대인예술시장 '별장'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도약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야시장이 열리는 주말에만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인근에 주안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지만 평일에도 발길을 이끄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이 미흡했다.

대인시장 인근에 자리한 옛 김내과 건물(광주시 동구 구성로 204번길)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하며 대인동 문화 색채에 풍성하게 한다. '김넷과'로 이름을 바꿔달고 전시·공연장, 도서관, 토이 카페, 예술호텔 등을 운영한다.

18일 방문한 '김넷과'는 정식 개관(19일)을 하루 앞두고 손님맞이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였다. 골목길에 자리해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이지만 새파랗게 칠한 외벽 덕에 멀리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름은 옛 김내과에서 따왔다. 1965년 개업한 김내과는 오랜 시간 광주시민들의 병을 치료하고 돌봐주던 곳이었다. 김내과처럼 예술을 통해 따뜻한 기억과 추억을 전달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인테리어도 원래 있던 벽을 살려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긴다.

공간을 만든 사람은 박현택 (주)영무건설 대표이다. 그동안 지역예술인들을 후원해왔던 박 대표는 대인예술시장에서 활동하던 대인예술단체 '미테-우그로'(대표 조승기) 이전 공간을 지원하며 아예 복합문화공간을 꾸몄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지역협력큐레이터로 선정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테-우그로'는 공동화장실 등 열악한 시설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옛 김내과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만큼 넉넉한 규모도 눈길을 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

모로, 한층당 330㎡(100평) 크기다.

지하에서는 주로 전시를 하지만 때때로 하우스콘서트 등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개관에 맞춰 박 대표가 소장한 작품을 배치했다. 고흐, 장사오강, 서세옥 등 유명작가 작품부터 지역 작가들의 영상,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앞으로도 지역작가전시, 해외 교류전, 옥션, 교육 등 다채롭게 운영된다.

1층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카페다. 한 켠에는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도록 아토티 상품을 진열, 판매한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곳은 테라스다. 자투리 공간에 테이블을 놓고 잔디를 깔았다. 벽에는 작가들이 만든 나무, 토기 조형물을 설치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카페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미테-우그로'가 나온다. 벽에는 지역 작가 작품을 배치하고 세미나실, 도서관 등을 운영한다. 특히 도서관은 예술서적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일반서적 600여권을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프로젝트 '월레회'의 세부 프로그램 '작품포커스'와 '작가스크리닝'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조승기 대표는 "대인시장에 있을 때보다 접근성이 좋아져 예술가들이 더욱 활기차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3층은 6개 객실로 구성된 예술호텔이다. 객실 내부는 아날로그 감성에 맞춰 바쿠한, 김영태, 박성완 등 지역 작가 작품을 배치하고 일부러 TV가 아닌 라디오를 놔뒀다. 1개 객실당 취사시설을 갖추고 4명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 예약제로 기존 호텔보다 저렴하게 운영된다.

그밖에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옥상(4층)은



'김넷과' 1층 야외 테라스(위)와 카페 한켠에 마련한 작가아트상품·아트도이 진열공간.

별자리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등 공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

카페나 호텔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작가 창작 지원 뿐 아니라 지역시민단체 후원금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그동안 옛 김내과 건물 일대는 사람 발길이 뜸했지만 '김넷과'가 대인시장과 중앙로, 문화전당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의 062-229-33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히말라야서 페루까지... 오지마을의 자연을 품은 사람들

'산악인 화가' 박종석 개인전  
20~30일 갤러리 리체

'산악인 화가', '오지화가'로 알려진 석주 박종석 작가가 신작을 들고 개인전을 연다. 20일부터 30일까지 갤러리 리체(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여행! 바람의 노래'를 주제로 특별기획 초대전을 갖는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히말라야부터 남미 페루까지 최근 탐방한 오지를 생생하게 담은 스케치 작품과 사진 등 아카이브 자료를 함께 선보인다.

전시 대표작은 히말라야 산맥을 소재로 한 8.8m×2.1m 크기 '불타는 신들의 정원'이다. 구름사이로 화살이 날아가고 꺾여 끝에는 부처 형상이 자리하고 있다. 자비와 평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를 꼬집는다.



'불타는 신들의 정원'

여행에서 수집한 민속품 100여점을 대추나무에 매단 설치작품 '꽃들에게 희망을'도 눈길을 끈다. 2006년 페루에서 가져온 '아마존의 후예' 공예품 등 쉽사리 만날 수 없는 현지 토속문화를 볼 수 있다.

또 히말라야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동양(인

도·네팔·티베트·몽골·파키스탄 등) 명상 음악을 들려준다.

여행 사진첩·일기장, 포스트 카드 등 각종 자료를 전시해 박 작가의 오지 탐방을 엿볼 수 있다. 현장에서 관람객 자화상을 직접 그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박씨는 호남대 미술학과,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광주미술상, 제2회 서암전통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개인전 17회, 초대전 7회, 단체전 200회에 참여했으며 전통화회사 연구와 세계 오지 기록 스케치 작업을 하고 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모집

26일까지 접수...10명 선발키로

광주디자인센터가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8일~10월23일) 도슨트를 모집한다.

도슨트는 행사 기간 관람객들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적인 전시 해설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한국어 능통 외국인인을 포함한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미술관·박물관 도슨트 유경험자,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통역 가능자는 우대한다.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도슨트 경력증명서(해당자), 개인 활동 정보동의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26일까지 디자인비엔날레추진단 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센터는 서류심사와 면접, 최종 시연 등을 거쳐 7월18일까지 최종 합격자 10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도슨트는 행사 기간 중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 201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www.gdb.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11-51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